해양수산부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일시 (인터넷) 2026. 11. 23.(월) 11:00
(지면) 2026. 11. 24.(화) 조간
배포 2026. 11. 23.(월) 06:00

해양수산부, 한국선급과 합동으로 겨울철 선원 안전사고 예방에 나선다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 이행 및 해사노동협약(MLC) 인증 기준 준수 독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와 한국선급*(회장 이영석)은 겨울철 선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 이행과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ur Convention, MLC)** 인증 검사 기준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해사노동협약(MLC) 인증 검사 대행 기관('13~)

** 선원의 적정한 근로·생활 조건에 관한 국제기준을 정하기 위해 ILO가 채택한 협약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직무상 재해 예방을 위해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을 마련하고 'MLC 인증 검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겨울철에는 한파와 강풍, 갑판 결빙 등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난방시설 점검이나 선내 작업 중 미끄러짐·추락 예방 조치 등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선사와 선원들에게 안전사고 예방 조치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11월 24일(화)에 영상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정부, 공공기관 등 관공선 운영기관에 안전보건교육, 선내 안전위원회 등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설명 자료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않는 민간 선사에게도 배포한다. 민간 선사의 경우 작년과 재작년에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s://mof.go.kr) 접속 후 정책자료 → 정책정보 → 정책게시판에서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 적용 매뉴얼(2026. 7. 20. 배포)' 다운로드 가능

아울러, 11월 24일(화)부터 내년 2월 4일(목)까지 MLC 인증 검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집중 지도한다. 난방시설 점검 및 결빙에 따른 미끄러짐과 추락 예방 등 겨울철 선원 근로·생활환경을 선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인증 절차에 따라 조치하도록 안내하고, 이를 통해 선박소유자의 책임 있는 안전관리와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근로·생활환경 조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선내 안전·보건 포스터를 국문본뿐만 아니라 영문본으로도 제작하고 배포하여 외국인 선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는 기존의 제도와 인증 절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공공과 민간이 함께 선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 예방 기준'은 어선을 제외한 「선원법」 적용 선박에 적용되고, 수산업 시험·조사·지도·단속·교습 선박도 포함된다. MLC 인증 검사는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 항해선 및 외국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에 대해 실시된다.

김혜정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은 "겨울철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선사 등에 대한 계도와 인식 개선, 해사노동협약 인증 검사를 통해 겨울철 안전사고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담당 부서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정로 (051-773-5740)
		담당자	사무관	이재유 (051-773-5742)
인증검사 대행기관	한국선급 협약심사팀	책임자	팀 장	전환성 (070-8799-8340)
		담당자	수 석	김서율 (070-8799-8344)
			수 석	임진성 (070-8799-8345)

참고 1 | 선내 안전보건 포스터(국문)



참고 2 | 선내 안전 · 보건 포스터(영문)

